

□ 출마 포부서

사랑하는 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원번호 33번인 김순미입니다.
1987년 프로 입문 후 약 15년 동안 투어활동으로 메이저대회 4승 포함 다승을
했었고 투어 활동 이후, 후배양성과 골프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박사학위를 취득
한 후, 현재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의 겸임교수와 SBS 골프방송에서 해설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의 이사 8년과 감사 3년을 지속적으로 경험했었고, 협회의 교육분과의
필요성을 느끼며 교육분과 첫 회와 2015년 1년 동안 다시 교육분과 위원장으로
분과에서 일했고, 2019년 9월까지 2년 동안 상벌분과에서도 경험을 하며 협회가
회원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여자프로 골프 협회는 임직원여러분과 회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으로 세계 No. 1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또한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키
고 회원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제가 임원이 된다면

1. KLPGA 투어를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대회 스폰서들께 감사하는 마음과 홍보 마케팅 및 언론사들께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임원으로서 대회 유치와 협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KLPGA의 목적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회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통하고 고민하며 실천하겠습니다.

3. 회원들의 직업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투어프로들의 뛰어난 재능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과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투어활동을 하지 않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도 한국여
자프로골프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로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회 입장에서 일하
겠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을 협회 발전과 회원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할 때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선거를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이 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복지를 함께 걱정하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 월 18일
성 명 : 김 순 미